

1960년대 손창섭 소설의 가족 공동체 연구 — 『부부』, 『삼부녀』를 중심으로 —

정 보 람*

요 약

1960년대에도 손창섭의 소설에서 가족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발견된다. 장편소설 『부부』와 『삼부녀』는 가족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 ‘약속’이라는 객관화 기제를 도입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부부』에서는 ‘부부 조약’이 등장하고 『삼부녀』에서는 ‘계약’이 등장한다. 그런데 『부부』는 실패에 이르고 『삼부녀』는 원만하고 화목한 가족 형성에 성공한다. 차이가 생기는 원인은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있는데, 전자의 인물들은 상대방과 일방적인 관계를 맺으려 하고 후자의 인물들은 토론과 합의를 거치는 관계, 즉 상호적인 관계를 맺는다. 나와 다른 존재, 명백한 타인과 상호 존중을 통해 가족을 형성하고자 하는 『삼부녀』의 방식은 건강하고 바람직한 가족 공동체를 만든다. 본고는 하나 아렌트의 개념을 통해 그 양상을 세부적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는 작가가 1950년대부터 ‘공동체로서의 가족’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구해왔음을 전제하고 있으며, 1960년대 작품의 특징적인 시도와 성취에 주목했다. 1950년대 작품에서 가족 공동체는 ‘죽음’을 계기로 삼아 형성되었던 것과 달리 1960년대 작품에서 가족 공동체는 ‘계약’을 계기로 형성되며 실패를 거쳐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다. 그 과정을 『부부』와 『삼부녀』의 두 작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공동체로서의 가족을 지향하는 작가의 이상(理想)이 어떻게 구체적인 형태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실험이자 대안 모델의 도출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주제어: 손창섭, 1960년대, 가족, 가족 공동체, 부부, 삼부녀, 약속, 계약

목차

1. 들어가며 : 손창섭의 1960년대식 가족 공동체
2. '부부 조약'과 일방적 관계 : 『부부』의 실험
3. '타인'으로서의 인간관과 상호적 관계 : 『삼부녀』의 '계약 주체'
4. '공감'과 새로운 윤리의 제시 : 『삼부녀』의 '가족 공동체'
5. 나가며 : '공존'에 대한 작가적 탐구

1. 들어가며 : 손창섭의 1960년대식 가족 공동체

이 논문은 손창섭의 1960년대 장편소설에서 발견되는 가족 공동체의 형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작가의 작품세계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나는 가족 공동체에 대한 탐구를 파악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지금까지 손창섭의 작품 세계에 대한 연구는 보통 1950년대와 1960년대 이후로 구분하여 두 시기에 창작 경향이 달라졌다는 결론으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다. 작가의 가치관과 작품의 방향이 특정 시기에 급격히 달라진다는 것이다.¹⁾ 그러나 본고는 1950년대와 1960년대 이후 작가의 궁극적인 창작 경향을 달라지지 않았다는 시각을 전제로 한다. 물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가가 처한 시대적 환경이 달라지고 작가적 실험과 성숙 등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이기에,

1) 1958년 발표된 「잉여인간」을 기점으로 삼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인간을 부정하는 허무주의적 태도에서 긍정성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가족의 문제와 연결시킬 때 이러한 태도 변화는 가장의 임무를 다하느냐의 문제로 수렴된다. 박찬효의 논문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박찬효,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남성의 존재론적 변환과 결혼의 회피/가정의 수호 양상」, 『상허학보』 42, 상허학회, 2014, 384면.

작품에도 문학적 형상화 방식에 차이가 나타나고 작가적 시도와 성취 역시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며 나아간다. 그러나 그것은 방법론에 대한 고투일 뿐 지향점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볼 근거들이 있다. 작가가 창작 기간 동안 가족을 다루며 끊임없이 탐구했던 목표가 ‘공동체로서의 가족’이며 이 ‘가족 공동체’는 결혼 제도나 혈연과 아무 관계가 없다.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조건은 제도나 혈연과 같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 사이에서 매순간 ‘발견되는 것’이며, 그렇기에 가족 공동체는 불변하고 절대적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의지에 따라 가변적이다. 특히 여기서는 1950년대와 변별되는 1960년대의 양상에 주목할 것이다.²⁾

제도와 혈연으로 형성된 가족은 손창섭의 소설에서 이상화되거나 절대화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낙원으로 이상화되거나 전적인 희생이 미화되지도 않는다. 주인공은 의무감과 부담감에 시달리며 생존 집단이자 통합 기체가 되어버린 가족을 회의하고 탈출을 시도한다. 『공휴일』의 도일이 그랬고 『미해결의 장』의 지상이 그랬다.³⁾ 개성을 잃고 집단의 일원이 될지 아니면 독립된 개인이 될지 선택의 기로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가 인물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창섭의 소설에서 독립된 개인을 추구하는 인물들이 최종적으로 이루는 새로운 가족의 양상이다. 1950년대 작품에서는 『생활적』의 동주와 순이, 『사연기』의 동식과 아이들, 『잉여인간』의 친구들에게서 새로운 가족 형상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⁴⁾ 그것은 배타적이고 억압적인 생존 집단으로

2) 1950년대 가족 공동체의 양상은 다음의 논문에서 분석되었다. 정보람, 「1950년대 손창섭 소설의 가족 공동체 연구」, 『어문논집』 45(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7, 248-255면.

3) 『공휴일』의 도일은 자신에게 결혼이 의무에 불과함을 깨닫고 파혼을 결심한다. 『미해결의 장』의 지상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집단화된 가족과 계속 불화하며 빠져나간다. (정보람, 「1950년대 신세대작가의 정치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75-178면)

서의 가족과 다르며, 개성과 의지를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결합하는 '공동체로서의 가족'의 모습이다.

1960년대는 군사정권의 시기로 1950년대를 이어 집단화 이데올로기가 지속된 시대이다. 손창섭에게도 집단화 이데올로기에 잠식당한 가족은 여전한 문제의식으로 남아 있었고, 집단화 이데올로기로부터 독립된 개인성에 대한 탐구 역시 지속될 필요가 있었다. 다만 그는 시대를 지나오며 중견작가로서 자신의 방법론을 성숙시켜 간다. 1950년대 작품에서는 타자에 대한 각성과 가족 공동체의 형성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자 결론이 되지만 1960년대 작품에 이르러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이 더 세분화되고 정치한 형태로 묘사된다. 작품 창작이 단편 중심에서 장편 중심으로 변화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가족 공동체의 형성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 타자/타인에 대한 감각이다. 가족 구성원을 '남편', '아내', '딸', '아들' 등 가족 내의 역할 혹은 위치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타자/타인'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족을 공동체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1950년대 소설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다만 1960년대에 이르러 그것을 보다 정치하게 탐구하기 위해 도입되는 문학적 장치가 바로 '계약'이다. 계약은 타인들끼리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나와 다른 타자라는 인식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계약이라는 틀은 작가가 실험하는 가족 공동체의 형태가 보다 현실적인 구체성과 안정성을 얻게 한다. 그러므로 1960년대 손창섭의 장편소설에서 계약 관계로서의 가족 형태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가족 공동체를 만드는지 면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계약 관계로서의 가족은 실험을 거쳐 안정화되어 가는데 그 과정

4) 자세한 내용은 정보람(2017)의 논문을 참고할 것.

이 『부부』와 『삼부녀』에서 선명하게 포착된다. 『부부』는 1962년 『동아일보』에 연재한 장편 소설⁵⁾이고 『삼부녀』는 1969년에서 1970년에 걸쳐 『주간여성』에 연재된 장편 소설⁶⁾로서, 이 중 『부부』는 1960년대 발표된 손창섭의 장편소설 중 가장 활발하게 연구된 작품이다. 부부의 성(性)에 관한 파격적인 내용 전개로 신문에 연재되는 동안에도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만큼 연구자들의 관심도 다양한 방면에서 표출되었다. 본고의 관심사인 가족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이선미는 남자 주인공 차성일에게서 개인 의식을 발견하고 그것을 거대담론으로부터 개인을 지켜내는 원천으로 파악했다. 이것이 새로운 가족 윤리의 제안으로까지 나아간다고 본다.⁷⁾ 한편 박찬효는 이데올로기의 균열로서 소설을 분석했는데, 그 초점을 가부장제에 맞췄다. 가부장제가 기대하는 바람직한 가부장의 자격에 못 미치는 남성 인물과 양처(良妻)상에 못 미치는 여성 인물을 통해 가부장제에 균열을 일으킨다는 것이다.⁸⁾ 두 연구자 모두 가족을 형성하는 근원적 동인이 국가, 민족 등의 거대담론과 가부장제에 있다고 파악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양상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지배적 담론을 벗어나는 개인의 형상에서 손창섭의 인물들이 가지는 특징적인 면모를 찾고 그것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에 길잡이가 된다.

『삼부녀』에 대한 연구는 아직 풍성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먼저

5) 『동아일보』 1962.7.1-1962.12.2. *본고의 인용문은 정음사에서 1962년 발행된 단행본을 사용. 이후 인용문에서 출처는 생략하고 면수만 표기함.

6) 『주간여성』 1969.12.30.-1970.6.24. *본고의 인용문은 예옥에서 2010년 발행된 단행본을 사용. 이후 인용문에서 출처는 생략하고 면수만 표기함.

7) 이선미, 『1960년 전후 (성)문화풍속과 '사랑'의 사회성 - 손창섭의 『부부』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29, 상허학회, 2010, 437면, 444면.

8) 박찬효, 『손창섭의 1960년대 신문연계소설에 나타난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과 양처 이데올로기의 균열 양상』,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6,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5, 223-229면.

방민호는 작품 해설을 통해 세태적 통속에서 새로운 가족 담론 제시로 질적인 비약을 이룬다고 소설의 의의를 분명히 했다.⁹⁾ 한편 공종구와 김명임은 정신분석학에 의거하여 분석을 시도했다. 공종구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해결하기 위한 오랜 노력으로 손창섭의 소설 세계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삼부녀』 역시 그 일환으로 이해하면서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정서 공동체’라는 가족 모델을 추구한다는 결론으로 향한다.¹⁰⁾ ‘정서 공동체’라는 명명은 뚜렷한 비평적 언어로 손창섭의 소설에서 이해, 공감이 갖는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킨다. 한편 김명임은 여성 인물의 정신적 건강성이 가족의 건강성 여부를 결정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안정적인 인간관계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다.¹¹⁾

위의 연구 성과에서 알 수 있듯 새로운 가족 형태의 등장은 중요한 변화로 파악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나타나며 어떤 특징과 성격, 의의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신분석학적 방법론을 통할 때 여성 인물들이 다소 기계적으로 해석되어 그들이 갖고 있는 다채로운 개성이 부각되지 못한다는 우려가 남는다.

김세준은 『삼부녀』의 ‘계약’에 주목하여 계약 관계가 기존의 가족 이데올로기를 재구성했다고 본다. 그런데 계약의 내용이 기존 가족 이데올로기의 내용과 유사하다고 판단하면서 또 다른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한계를 가진다고 논의를 마무리한다.¹²⁾ 계약 관계를 작

9) 방민호, 「막장 드라마의 이면」, 『삼부녀』 작품해설, 예음, 2010, 249면.

10) 공종구, 「《삼부녀》에 나타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가족주의」, 『현대소설연구』 50, 한국현대소설학회, 2012, 23-28면.

11) 김명임,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가족의 의미 - 불안과 회피에 대하여」, 『반교어문연구』 45, 반교어문학회, 2017, 175-176면.

12) 김세준, 「자유계약을 통한 가족이데올로기의 재구성 - 손창섭 장편소설 『삼부녀』를 대상으로」, 『인문연구』 75,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200-205면.

품 해석의 열쇠로 본 점은 작품에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 시사점을 남긴다. 다만 작가의 한국 사회에 대한 혐오, 더 나아가 자기혐오에 방점을 찍음으로써 작품의 의의가 충분히 조명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강유진은 『삼부녀』에서 남녀관계가 기존의 도덕적 구조가 정해 놓은 역할과 의무보다 “쌍방의 계약적 합의”에 의한다고 적시한다.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제시할 수 있는 가치관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¹³⁾ 이는 매우 유의미한 통찰이며 본고의 논의에도 중요한 참고점을 제공해주었다. 다만 위 논문은 작가의 작품 전반을 다루는 논의의 특성상 작품의 세부적인 양상을 충분히 다루지는 않았기에 해명되지 않은 부분들을 많이 남겨두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두 작품에 관한 논의들은 각각 유의미한 지점을 확보하고 있으나 가족과 관련한 작가의 일관된 지향점에 대해서는 자세히 분석된 바가 없다. 또한 새로운 가족 형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아직 충분히 해명되지 않은 상황이다. 두 작품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연결고리 역시 아직까지 다뤄진 바 없다. 본고는 그 빈공간을 채우고자 하는 시도이다. 가족 공동체를 작가의 일관된 문제의식이자 지향점으로 상정하고 개별 작품을 들여다봄으로써 분석의 깊이와 구체성을 확보하고 또한 작품들이 이루는 큰 그림을 파악함으로써 작가의 작품 세계 속에 존재하는 일관성을 확인할 것이다.

그 작업을 위해 『부부』의 ‘부부 조약’과 『삼부녀』의 ‘계약’에 초점을 맞췄다. 이 둘은 ‘약속’이라는 형식을 빌려 가족이라는 사적 관계

13) 강유진, 「손창섭 소설의 변모 양상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58면.

또한 같은 페이지에서 이러한 경향이 『광야』(1956), 『인간교실』(1963)에서 이어지고 있음을 언급한다. 이를 통해 가족 공동체에 대한 작가의 관심이 창작 시기 전반에 걸쳐 이어지고 있다는 본고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를 공적 관계로 다시 정립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의도하는 바가 같다. 그러나 『부부』의 가족이 외형만 겨우 유지한 실패작인 반면 『삼부녀』는 조화로운 가족 공동체에 도달한다. 원인은 '타인'에 대한 인식 수준과 관계 맺기의 방식에서 나타나는 분명한 차이에 있다. 전자의 경우 약속이 지속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반면 후자는 충족시킨다. 본고는 그 지점을 파고들으로써 이 두 작품이 보여주는 실험과 발견의 양상을 추적한다. 거기에서 작가가 추구하는 가족 공동체의 모습도 구체화될 것이다.

2. '부부 조약'과 일방적 관계 : 『부부』의 실험

받아보니 <부부 조약>이라는 표제 밑에

一, 우리 부부는, 월 일 회 이상 동침치 않으며, 지나친 동작을 엄금한다.

二, 우리 부부는, 합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애무하지 못한다.

三, 우리 부부는, 피차의 사회활동(봉사회 관계 등)에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

四, 우리 부부는, 사업상의 이성 교제에 대하여 오해 또는 간섭하지 않는다.

五, 우리 부부는, 어떤 경우에도 폭언 폭행 등의 모욕 행위를 하지 못한다.

벌칙 = 이상, 한 조목이라도 위반한 쪽은, 위반당한 쪽의 어떤 요구에도 무조건 순응해야 하며, 불연이면 아내 또는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기묘한 조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부』, 155면)

『부부』에서 주인공이자 화자인 차성일은 아내 서인숙으로부터 위

와 같은 조약을 제안받는다. 서인숙이 보건계몽봉사회라는 단체에 관여하게 된 후로 가정을 떠나면서 부부 사이의 묶은 갈등이 폭발하게 되는데 갈등의 해결책으로 서인숙은 차성일에게 ‘부부 조약’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다.

갈등을 서면 약속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부부 관계를 어느 정도 공적인 차원에서 바라본다는 점에서 신선하다.¹⁴⁾ 부부 관계는 보통 사적인 영역으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하물며 부부의 성(性)문제는 부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서인숙은 차성일과의 관계를 ‘약속’이라고 하는 공적 차원에 올려놓으려 한다.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인데도 공적 차원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조건을 제시하고 그것을 승인하는 절차가 ‘남편’과 ‘아내’라는 위치를 ‘조약 당사자’라는 위치, 다시 말해 명백한 타인의 위치로 바꾸어 놓기 때문이다. 또한 문서화는 구두 약속의 불투명성을 줄이고 사물적인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공적인 속성을 강화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차이에 대한 한나 아렌트의 고전적인 구분은 여전히 통용될 수 있다. 사적 영역은 힘과 폭력이 통용되는 영역이고 공적 영역은 말과 설득의 영역이다. 이 두 영역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차이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타인의 유무이다. 여러 인간이 있더라도 이해관계가 같거나 통합시킨 집단적 상태가 사적 영역의 특성이고, 그러므로 이해관계를 통합시키기 위한 생물학적 힘과 그에 따른 위계가 사적 영역을 지배한다. 가정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¹⁵⁾ 반면 타인들을 설득함으로써 지지를

14) 이선미는 앞서 언급한 논문에서 이 소설이 남성과 여성을 개별적 주체로 인정하는 것에서 이전과는 다른 남성상이 발견된다고 보았다. 아내는 목욕하는 모습을 흠쳐본 남편을 당연하게 처벌하고, 남편은 그것을 받아들인다. 아내를 ‘대화와 설득의 대상’으로 보는 태도는 당대 통용되던 젠더 권력 관계와는 매우 다른 것이었다. (이선미, 앞의 논문, 429-430면)

15)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 옮김, 한길사, 2017, 96면.

사적 영역의 가장 명백한 특징은 생물학적 필요와 욕구를 위한 공동생활이 영위

언을 때 형성되는 권력이 통용되는 장소가 공적 영역이다. 여기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서로를 설득하는 이들 간의 동등함이다. 동등함이 전제되어야 말과 설득이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되고 그렇게 형성된 권력에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는 것이다.¹⁶⁾ 그런데 동등한 인간들 사이의 말은 속성상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사라지며 마음은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것이어서 서로를 신뢰하기가 어렵다. 서로를 신뢰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약속’이다. 약속은 인간 사이의 관계와 그 사이에서 오간 말을 공식화, 객관화함으로써 거기에 관여한 당사자들의 행동에 동등하고 상호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그것이 신뢰를 만든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법적인 ‘계약’의 원형이 된다.¹⁷⁾ 『부부』의 ‘부부 조약’과 『삼부녀』의 ‘계약’은 모두 ‘약속’의 실현태로 설명할 수 있다. 다만 지속가능성에서 차이가 있다. 전

되는 곳이다. 강제와 폭력은 생물학적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을 다른 이에게 떠넘기기 위해, 다시 말해 다른 이가 더 많이 지도록 하기 위해 사적 영역에서 빈번히 일어나며 정당화된다.(100-102면)

그리고 이 사적 영역의 다른 이름으로 쓰이는 말이 바로 ‘가정영역’이다.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단순한 구분은 가정과 정치 영역의 구분과 일치하며”(같은 책, 98면)

- 16) 권력은 공적 영역에서 동등한 타인들과 말을 하는 능력인 ‘행위’가 일어날 때 무수히 일어나는 행위의 작용과 반작용 속에서 형성되어 현상하는 것이다. (한나 아렌트, 앞의 책, 291면) 이때 ‘권력’은 사적 영역에서 생물학적 완력에 의해 행사되는 ‘힘’과 다른 개념이다. “힘이 고립된 개인에게서 볼 수 있는 자연적인 성질인 반면, 권력은 함께 행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나 그들이 흩어지는 순간 사라진다.”(위의 책, 292면)
- 17) “한나 아렌트는 (중략) 인간의 의지의 연약성과 이로 인한 인간행위의 속성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인간 행위능력 그 자체 속에서 찾는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약속하는 능력인 것이다.”(공병해, 『약속 인격의 정체성과 도덕적 의무』, 『칸트 연구』 32, 한국칸트학회, 2013, 39면)
- “약속의 능력에 내재하는 안정화의 힘은 전통이 늘 인식해왔던 것이다. 계약은 지켜야 한다는 불가침성을 핵심으로 하는 로마의 법적 체계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중략) 어쨌든 로마 이후의 다양한 계약이론은 약속의 힘이 수세기에 걸쳐 정치사상의 핵심을 차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한나 아렌트, 앞의 책, 340-341면)

자의 ‘부부조약’에는 약속이 유지되도록 하는 필수 요건이 사실상 결여되어 있어 성립은 되나 곧바로 실패에 이르는 반면, 후자의 ‘계약’은 ‘나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면서 동등한 타인’을 전제했기에 성공적으로 유지된다.

위 논의를 바탕으로 ‘부부 조약’의 의의와 한계를 분석할 수 있다. 먼저 의의부터 살펴보자. 소설에서 한 장(章)을 할애하여 다루고 있는 ‘제처권(制妻權)’ 논쟁은 이 작품에서 부부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차성일의 친구인 권 군과 장 형이 차성일의 부부 갈등을 놓고 논쟁을 벌인다. 말을 안 듣는 아내는 주먹으로 제압해야 한다는 권 군의 말¹⁸⁾에 장 형은 아내도 “똑같은 인간”이라고 반박하면서 그런 방식은 “현대의 부부 생활”에 걸맞지 않다고 말한다.¹⁹⁾ 나아가 남편이 “종합적인 힘”을 갖고 그 힘이 “아내보다 우세하면” 아내의 존경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도 한다.²⁰⁾

주목할 지점은 “현대의 부부 생활”이라는 표현과 “아내보다 우세하면”이라는 표현이다. 이 작품이 연재될 당시인 1962년에는 호적법 개정, 즉 대가족제에서 소가족제로의 가족제도 개편이 사회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었다.²¹⁾ 가족은 부부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18) “애, 애, 그 시시한 소리 좀 집어쳐. 여편네를 길들이는 데 무슨 인격이구 교양이구가 필요해. 하긴 나도 애정만은 인정한다. 그러니까, 애정과 경제력만 있으면 마누라란 말로 안 통할 땐 주먹으로 내리눌러 봐야 하는 거야.”(『부부』, 99면)

19) “그렇다고 아내대러 무조건 남편에게 추종하라는 건 말이 안 돼. 아내도 남편이나 똑같은 인간인 이상, 무슨 일이나 아내대로 자기의 의견과 주장이 있을 거야. 그걸 덮어놓고 여편네가 무슨 참견이냐고 묵살해 버린다는 거, 마누라의 의견이나 주장이 옳다고 인정하면서도 주먹으로 굴복시켜버린다는 건 현대의 부부생활에선 용납될 수 없는 일이란 말야.”(『부부』, 99면)

20) “내가 아까 말한 ‘종합적인 힘’, 즉 애정, 인격, 지식, 교양 그리고 경제력, 이런 것이 뭉쳐진 하나의 ‘힘’을 남편은 가져야 하고 그런 힘이 아내보다 우세하면, 자연 아내가 존경하고 따르게 마련이라고 봐.”(『부부』, 100면)

21) 『부부가족제로』, 『경향신문』 1962.9.25.

명제가 법적 제도로 명시됨에 따라 부부 관계가 곧 가족의 구성과 유지를 의미하게 되었다. 아내와 불화하지 않기 위해 동등한 인간으로 인식하여 아내를 설득해야 한다는 발언은 그러한 인식을 반영한다. 또한 아내를 다스리려면 ‘종합적인 힘’이 아내보다 우세해야 한다는 주장은 만약 우세하지 못할 경우 아내에게 남편의 체면을 세울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종합적인 힘’의 우위를 놓고 다투는 경합 속에 놓음으로써 폭력이 아니라 설득이 필요한 공적 관계의 속성을 부여한다.

그렇다면 한계는 무엇인가. 차성일이 곧바로 알아차렸듯 이 조약은 아내 서인숙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다.²²⁾ 차성일의 입장이나 요구, 취할 수 있는 이득은 고려되어 있지 않다. 즉 내용에 있어서 두 당사자 사이의 동등함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 내용의 일방적 성격이 형식이 보장하는 동등함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다.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위의 인용문의 줄친 부분이다. 부부 조약의 조항들은 “엄금한다”, “못한다”, “않는다” 등 모두 금지어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용을 보아도 차성일의 요구는 반영되어 있지 않고 서인숙의 요구만이 반영되어 있다. 의무는 모두 차성일에게 주어지고 이득은 서인숙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다시 말해 서인숙이 차성일을 일방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 이 조약의 핵심이다.²³⁾ 여기에서

22) “나는 정신을 바짝 차려 다시 한 번 자세히 읽어 보았지만, 이 조문은 아무래도 나에게만 지독히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무조건 동의하란 말요?”

물었더니,

“그래요. 무조건 수락하고 서명 날인하시겠어요?”

아내는 진지한 태도로 묻고 나를 지켜보았습니다.” (『부부』, 155면)

23) 아내가 하는 양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면서 자신을 떠날까 봐 전전긍긍하는 모습, 즉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모습은 ‘제치권’ 행사에 익숙한 당시 남성들에게 ‘모독’으로 느껴질 만도 하다. 이것이 당시 연재 중이던 작품에 쏟아졌던 세인의 비난 혹은 관심의 정체일 것이다. 작가는 단행본에 실린 후기에서 남

동등함과 거기에서 오는 상호성은 찾아볼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무조건”이다. 반론과 협상,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일방적인 태도는 이들 부부의 대등하고 평화로운 결합을 요원하게 만든다. 이것이 조약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다. 부부 조약은 전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다. 차성일은 서명하면 아내가 집에 돌아오리라 기대하고 억지로 조약에 서명하지만 서인숙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차성일의 불만은 쌓여만 간다. 차성일은 여러 번 조약을 위반하여 점점 더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며, 억눌린 감정이 폭발하여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게 이른다.

그런데 일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서인숙만이 아니다. 차성일 역시 아내의 요구 사항을 사실상 거의 수용하지 않는다. 아내가 원하는 정신적인 성숙과 교양의 함양은 자신이 타고난 생리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거부하고 아내가 자신에게 맞춰주기만을 바란다. 아내의 속내가 어떠하든지 자신이 아내를 사랑하니 절대 이혼할 수 없다는 태도 역시 상대방이 자신과 다른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을 뜻한다. 시종일관 우유부단하고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피해자처럼 보이는 면이 있지만 사실상 강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폭언과 폭행을 저지르는 것 역시 강압적으로 상대를 통제하고자 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주먹으로 아내를 제압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권 군과 대화와 교양으로 대해야 한다는 장 형의 논쟁에서 차성일이 어느 쪽도 취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양쪽을 오가기 때문이다. 아내의 요구를 경청하고 대화로 해결하려는 태도와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완력으로 밀어붙이는 태도가 그에게 공존한다.²⁴⁾ 전자가 이 소설에서 나타나는 부

성독자층으로부터 “남성에 대한 모독이라는 비난”을 받았음을 밝혔다.

부 관계의 의의라면 후자가 한계라 할 것이다. 서인숙 역시 마찬가지다. 남편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 자신을 동등한 당사자로 인식하고 약속을 통해 관계를 객관화하려는 태도는 의미가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차성일을 동등한 당사자로 대우하지 않았기에 부부 갈등은 해소되지 않는다.

작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관계의 모델은 제처권 논쟁에서 장 형이 취한 입장이 대변한다. 서로 동등한 당사자임을 전제하고, 말과 설득 다시 말해 인격 차원에서 일어나는 자기 표출과 그것의 공정한 경합을 바탕으로 하는 관계이다. 그렇기에 장 형은 ‘제처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문제 삼고 “공동 생활권”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²⁴⁾ 그러나 부부 관계의 이상(理想)이라 할 공동 생활권은 두 사람의 일방적인 태도로 인해 성취되지 않는다.

우여곡절 끝에 그들은 결혼 상태를 유지하지만 표면적인 봉합일 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두 사람 모두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켜 서로를 통제하려고 했을 뿐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를 인정하고 조정이나 타협을 통해 양쪽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실패는 곧

24) 작가는 연재 후 대담에서 차성일이 자신의 분신인 것처럼 한 박사도 자신의 분신이라고 말한다. 괴짜이면서 규범적인 사람이 곧 자신이라는 것이다. (손창섭, 『나는 왜 신문소설을 쓰는가? - 『부부』의 작가 손창섭 씨는 말한다』, 『세대』 1968.3. 211면) 생리에 맞지 않는 일은 좀처럼 하지 못하는 기질, “맹목적인 고집”이 있다고 고백한다. (212면) 여기에서 작가와 차성일 사이의 유사성을 가늠해볼 수 있고 또한 차성일이 보여주는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에 대한 이해도 가능할 것이다.

25) 아렌트는 공론 영역이 “격정적인 정신으로 충만”하다고 말한다. “모두가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자신의 특성을 부각”시키면서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이다. (한나 아렌트, 앞의 책, 113면) 이처럼 ‘공동 생활권’에 관련한 장 형의 주장은 아렌트가 인간의 근본 활동 중 하나로 설명한 ‘행위’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약속’ 역시 행위의 한 종류로 개념화된 것임을 볼 때 이 두 소설을 독해하는 데에 있어서 아렌트의 개념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일방적인 관계 맺기의 실패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작품 자체의 실패로 확대해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결합이 있는 인간과 인간 간의 갈등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 작품의 목적과 의의는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이다.²⁶⁾ 또한 가족 공동체에 대한 작가의 오랜 고민에 유의미한 변곡점을 남긴 것 역시 분명해 보인다. 약 7년의 시간이 흐른 뒤 발표한 작품 『삼부녀』에서 우리는 가족 형성을 둘러싼 관계 맺기의 실험을 다시 한 번 목도하게 되는데 『부부』의 구도를 발판으로 삼으면서도 상호적 관계로 나아가는 질적 도약을 확인할 수 있다. “공동 생활권”이 적용된 관계가 비로소 발견되는 것이다.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타인’으로서의 인간관과 ‘계약 주체’의 등장이다.

3. ‘타인’으로서의 인간관과 상호적 관계 : 『삼부녀』의 ‘계약 주체’

“경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이번에도 조그만 수첩을 꺼내더니, 거기에다 무엇인가 기입했다.

“그러면 계약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이러더니 경희는 수첩을 들여다보며 극히 사무적인 어조로

26) 작가가 쓴 다른 글에서 “하나님의 말씀(진리)만으로는 살 수 없는 ‘동물’이라는 표현이 있다. (손창섭, 『아마추어 작가의 변』, 『사상계』 1965.7. 301면) 이는 『부부』의 결말 부분에서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는 신도 아니고 인간이니까, 인간으로서의 수치와 자랑을 곁해서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부닥해 두고 싶소.”(366면)라는 차성일의 말과 공명한다. 그가 작가로서 탐구한 것은 이렇듯 신을 추구하면서도 동물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 자체에 있다. 손창섭과 그의 인물들은 신의 말씀만을 추구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동물이기만 한 것도 아니다. 결합이 인간의 숙명이라는 작가의 인식을 바탕으로 생각하면, 실패 역시 작가의 인간 탐구가 내린 하나의 결론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실패이나 아니냐가 아니라 실패의 내용이다.

읽었다.

“일, 교제 기간은 오늘부터 육 개월로 한다. 단, 기한 만료 후 쌍방에 이의가 없을 때는 자동적으로 육 개월 연장된다. 이, 데이트 횟수는 주 일 회로 한다. 삼, 교제 기간 중 남자는 여자에게 매달 사만 원씩의 생활비를 선물하고, 별도로 학교의 등록금을 부담한다. 이상 틀림없죠?”

“틀림없음!” (『삼부녀』, 92-93면)

『삼부녀』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계약 가족’이다. 선행 연구들도 거기에 주목하면서 대부분 새로운 가족 형태를 제안했다는 점, 한국 사회에 대한 작가의 신랄한 비판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았다. 여기서는 그러한 성과를 발판으로 삼아 이 소설에서 계약 가족이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가족 형태를 제시하는지 그리고 그것의 긍정적인 가능성은 무엇인지를 『부부』와의 연결고리 속에서 살펴볼 것이다.

그 작업을 위해 먼저 ‘계약’이라는 형식이 앞서 『부부』에서 등장한 ‘부부 조약’과 어떤 점에서 같고 또 다른지를 규명하는 것이 빠른 길일 것 같다.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부부』의 차성일과 서인숙이 그런 것처럼 『삼부녀』의 강인구와 안경희도 약속을 통해 사적 관계를 객관화하려 한다. 약속이라는 형식이 미래가 불확실하고 자칫 사적인 힘의 우위에 잠식당하기 쉬운 인간관계를 공적 영역으로 끌어와 안정화한다는 것은 앞서 정리한 바 있다. 『삼부녀』의 안경희 역시 마찬가지다.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 중년 남성과의 계약 연애에 뛰어들 상황에서 자신이 처한 상대적인 불리함과 위험, 즉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가 사이의 격차가 생길 수 있고 또 상대방에서 함부로 굴기도 쉬운 상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정식 교제 전에 조항을 만들어 합의를 시도한다. 그리고 강인구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완성한다.

위의 계약이 '부부 조약'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그것이 상호적이라는 데에 있다. 계약의 조항을 보면 강인구와 안경희 모두에게 의무와 권리를 부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은 당사자 양쪽의 분명한 동의를 얻을 수 있었고 소설이 끝날 때까지 평화롭게 유지된다. 이러한 상호성은 서로를 명백한 '타인'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만약 강인구가 안경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요구한다면 안경희는 거절할 것이고 계약은 성립될 수 없다. 이것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렇기에 상대가 기꺼이 계약이라는 약속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서로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다. 계약이 유지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상대를 계약 안에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계약에 명기된 의무를 다한다.

서로를 명백히 '타인'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달리 말해 대가 없는 의무를 기대하지 않으며 쌍방의 합의 아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 '남자', '여자' 혹은 '애인'이라는 위치 혹은 관계에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던 의무들을 걸어낸다. 이들은 계약서에 명시한 만큼의 의무만 이행하면 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얻는다. 서로 합의한 약속에 동등하게 연루된 '계약 주체'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들의 관계는 매우 친밀하지만 그 안에서 분명한 거리를 유지한다.²⁷⁾ 친밀하되 지나치게 밀착하지 않음으로써 각자의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개별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시되는 간섭이나 요구도 이들 사이에는 없다.

27) 나중에 강인구의 집에서 동거하게 된 뒤 함께 동거하는 김경미는 이제 한집에서 사니 집에서 연애를 하라고 하자 안경희는 단번에 거절한다. 강인구와 자기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럴 순 없어. 그렇게 되면 아저씨와 나 사이엔 통제가 무너져버려. 우리가 부부나 준부부라도 될 사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한 역시 일정한 거리와 한계를 두고 접해야 하나까 말야.” (『삼부녀』, 212면)

이러한 계약 연애가 그 자체로 바람직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더라도 이 소설 안에서만큼은 긍정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사실이다. 작가가 의도적으로 도입하여 세심하게 작동시키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놀라실 거 없어요. 사랑이란 말의 공수표보다는 차라리 캐시로 여자를 사는 편이 훨씬 공정한 거래방법이니까요.”²⁸⁾라는 안경희의 말에서 작가가 이러한 관계를 들고 나온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

사랑한다는 것, 즉 친밀하다는 것은 인간에게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위로와 만족감을 주지만 때로는 개인의 개별성을 침해하고 파괴하는 원인이 된다. 안경희는 의붓아버지에게 강간을 당했고 집을 나와 가정교사로 들어간 집의 주인에게 다시 강간을 당했다. 모두 가족이거나 가족처럼 친밀하게 일상을 공유하는 사이에서 일어난 폭력이었다. 애인과 가족, 성(性)은 모두 ‘친밀함’을 연상시키며 사랑이라는 개념과 가장 가깝고 어울린다고 여겨지는 개념들이다. 그러나 『삼부녀』는 친밀함이 인간 사이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을 반복해서 묘사한다. 대표적인 예가 강인구의 친구 김창갑이다. 그는 자식까지 낳은 애인이 있었으나 가족들의 압력으로 다른 여성과 결혼한다. 그 뒤로 아내의 여동생과 외도를 해 아이를 낳는다. 그 결과 아내는 자살에 이르고 딸은 집을 떠나 방황하게 된다. 이처럼 이 소설에서 사적인 영역에 국한된 친밀함은 강압과 폭력 혹은 쾌락에 경도되어 있으며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어느 한쪽을 파멸로 몰아간다.

아렌트는 타인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 ‘사랑’이라는 사적 친밀감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오히려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개인 사이의 공적 공간을 없애기 때문이다.²⁹⁾ 따라서 위 인용문에서 안경

28) 『삼부녀』, 134면.

29) 김선옥, 「정치 공동체 형성 원리로서의 사랑에 대한 연구」, 『정치사상연구』 10.

희가 말한 “사랑이라는 공수표”라는 표현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친밀감이 인간의 인간됨을 오히려 침해하고 파괴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소설에서 계약 연애는 단순히 통속적인 호기심과 선정성을 넘어선 의미를 가진다. 즉 남녀의 성(性)적 관계에 상호적인 약속을 도입함으로써 친밀함이 가져오는 파탄을 막는 장치인 것이다. 강인구와 안경희의 관계가 이상적(理想的)으로 그려지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할 것이다. 두 사람의 교제는 세인의 눈에 떼떼하지 못한 관계로 비춰지는 것이 사실이다. 강인구도 처음 안경희를 소개받을 때에는 떨떠름함을 떨치지 못하고 서글픔까지 느낀다. 그런데 계약의 형태로 관계를 시작하고 지속시켜나감에 따라 그들의 관계는 처음의 우려와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강인구는 전 부인과 공유하지 못했던 육체적, 심리적 만족감을 안경희에게서 얻지만 그렇다고 안경희가 동의하지 않은 것들을 함부로 요구하지 않는다. 교제의 대가로 치러야 하는 금액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정하고 충실히 지급한다. 안경희 역시 계약의 한도 내에서 강인구에게 최선을 다하고, 안정적이고 존중받는 남녀관계를 강인구를 통해 경험한다.

특히 안경희는 계약 연애가 결코 “타락”이나 “자포자기”의 심정이 아니라 “심사숙고” 끝에 결정한 ‘살아가는 방법’임을 강조한다.³⁰⁾ 이

한국정치사상학회, 2004, 208면. 이 논문은 그러나 사랑이 공동체 안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부차적 역할을 수행할 수는 있다고 말한다. 강인구의 새로운 삼부녀가 그들의 공동체 속에서 만족감을 얻고 가족적 유대감을 느끼는 것에서 그러한 사랑의 역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30) 인구 씨는 방바닥에 벌렁 누워서 경희가 한 인동을 생각해보았다. 나이도 어리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 굴욕적인 상처를 입어 오면서도 확고한 주관과 자신을 갖고 자기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 의외였다.

(중략)

“사람은 누구나에게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과 길이 있을 거예요. (중략) 그러기에 저는 결코 이지고잉한 타락이나 자포자기에서 이런 수단을 택한 건 아니예요. 심사숙고 끝에, 저 같은 처지의 여자가 저 나름의 인생계획을

러한 안경희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은 소설 바깥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소설 안에서는 건실하고 야무지게 삶을 개척해나가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안경희는 학업과 그 외 생활 습관에 있어서도 빈틈이 없고 김경미와 함께 강인구의 집에서 동거하게 되었을 때에도 학업과 살림을 꾸려나가는 방식에 있어 강인구는 물론이고 주위 사람의 감탄을 자아낸다.

강인구가 안경희에 대해 감탄하고 그녀의 삶의 방식을 하나의 가능한 선택지로 인정하는 것은 두 사람의 사이에 존중이 있음을 보여준다. 안경희 역시 계약을 성의껏 이행하고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강인구를 인정하고 공대한다. 이들의 계약 관계가 안정적이고 긍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들 사이에 ‘존중’이 있기 때문이다. 아렌트가 사랑 대신 공동체에 필수적인 것으로 꼽은 것이 존중이다.³¹⁾ 존중은 상대가 타인이라는 명백한 인식과 그 거리감 속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존중이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며 윤리성을 담보한다.

4. ‘공감’과 새로운 윤리의 제시 : 『삼부녀』의 ‘가족 공동체’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친부녀 사이처럼 서로 믿고, 의지하고, 아끼며 화목하게 같이 산다. 1970년 2월 25일 강인구 안경희 김경미

성취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이 길뿐이란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아저씨 같은 애늬은일 낚아낸 거죠. (후략)” (『삼부녀』, 134-135면)

- 31) “매우 좁은 영역에서 사랑이 관계한다면 인간사의 넓은 영역에서는 존경이 관계한다.”(한나 아렌트, 앞의 책, 339면) 타인들이 모여 원활하게 서로 관계를 맺고 행위를 해나가기 위해서 ‘존경’(존중)이 필수적이다.

(중략)

남남끼리 맺어지는 가족적 유대감이란, 혈육 간과는 다른 가치와 의미를 지닐 수도 있으니 말이다. 이리하여 그들 계약 가족의 새로운 출발은 시작된 것이다. (『삼부녀』, 214-215면)

위 인용문은 강인구의 집에서 살게 된 강인구, 안경희, 김경미가 새로 작성한 계약서이다. 강인구와 안경희가 보여준 관계 맺기의 방식은 이후 김경미의 등장과 함께 가족 차원으로 확장된다. 강인구가 새로 이루는 가족은 기존의 가족과 명백하게 구별되는 공동체로서의 가족이다. 가족 공동체에서는 ‘남편’이나 ‘아내’, ‘자녀’ 등의 위치, 즉 핵가족의 공식 자체가 불필요해진다. 모두 동등한 타인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공존하기 때문이다. 앞 장에서 강인구와 안경희의 관계 맺기 양상을 중심으로 가족 공동체의 형성 원리에 대해 다루었다면 이 장에서는 그것의 확장된 형태라 할 강인구-안경희-김경미의 새로운 삼부녀를 중심으로 가족 공동체 안의 공감과 존중, 그로 인한 윤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강인구가 이루고 있던 기존의 가족은 결혼이라는 제도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였다. 그러나 영실과의 이혼을 시작으로 보경과 보연 두 딸마저 강인구와 함께 있기를 거부한다. 이들은 서로 진지한 대화나 소통을 하지 않는다. 영실과의 결혼 생활, 딸들과의 관계에 대한 묘사에 개성의 드러냄이나 서로에 대해 알아가려는 노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강인구가 이혼에 이르는 과정과 영실이 다시 재결합을 타진해 오는 과정에서도 두 사람 사이의 이해나 소통의 노력은 일어나지 않는다. 강인구의 전 아내인 영실은 문란하고 패륜적인 성관계로 이혼당했음에도 자신의 행실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과로 강인구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 없이 단지 아이들의 엄마라는 이유로 재결합을 타진해온다. 철저히 제도와 혈연에 의지하여 가족이라는 관계를 맺고자 시도하는 것이다. 여기에 강인구는 깊이 실망하여

기존 가족의 해산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강인구와 동생에게 큰 상처를 입힌 생활 태도를 버리지 않는 영실, 어머니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보경과, 반대로 가족 모두를 도덕적으로 경멸하는 보연 모두 각자의 입장과 방식만을 고수하면서 서로에게 그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렇기에 그들은 함께 머물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진다.

반면 강인구의 집에 새로 들어와 가족을 이루는 안경희와 김경미는 낯선 타인들끼리 함께 머문다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그들 사이에는 개성과 인격의 드러냄과 대화, 그리고 존중이 있다. 이 존중은 강인구와 안경희의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후 만나게 되는 김경미, 함께 사는 식모와도 공유된다.³²⁾ 그들이 “가족적인 단란한 기분”³³⁾을 만끽할 수 있었던 데에는 서로에 대한 인격적 존중이 큰 역할을 한다.

한편 이러한 존중은 강인구가 기존의 가족을 해산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는 두 딸 보경, 보연과 가족의 향방을 결정하기 위한 ‘삼부녀 가족회의’를 연다. 딸들도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 것은 그동안 딸들이 가족의 화합을 위해 고민하고 종내는 함께 협력하리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그러한 희망이 얼마나 단순하고 일방적이었나를 깨닫지 않을 수 없었”³⁴⁾다고 말한다. 가족의 해산은 딸들의 입장과 자신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결정으로, ‘단란한 가정’이라는 자신의 제안과 욕망이 모두의 동의를 얻는 데에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이

32) “물론 경희나 경미 쪽에서는 처음부터 식모 아주머니를 이 집의 늙은 고용인이라 해서 깔보거나 업신여기는 일 없이 동등한 인격적 대우를 해왔던 것이다.”(『삼부녀』, 211면) 식모 아주머니는 곧 경희와 경미를 안타깝게 여기고 남 깔지 않게 대하게 되었다고 서술된다.

33) 『삼부녀』, 211면.

34) 『삼부녀』, 141면.

다.³⁵⁾ 이러한 대응은 『부부』의 차성일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차성일이 아내의 의사를 무시하고 헤어지지 않겠다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던 데 비해 강인구는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다면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각자가 좋은 대로 살아가도록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 전 부인과 딸들을 자신의 의사대로 끌고 가려고 하지 않고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 그러면서도 자신의 입장도 포기하지 않는 태도는 외형상으로는 해산의 결과를 낳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상호적인 관계 맺기를 향한 일관된 추구가 있었다.

그들은 저녁식사를 끝내고 차를 마시거나 과일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지껄이는 시간도 무척 즐거웠다. 그들 각자가 겪어온 경험과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갖가지 인생 문제를 놓고 기탄없이 논전을 벌이는 일은 단순한 재미에 그치지 않고 각자의 성격과 취미와 인생관을 명확히 보여주는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는 얻는 점도 많았다. (『삼부녀』, 212-213면)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세계는 서로에게 자신의 인격을 드러냄으로써 나타나고 유지된다.³⁶⁾ 강인구, 안경희, 김경미의 신(新) 삼부

35) “가정 구조의 기본 단위를 어디까지나 ‘부부’에 두고 있는 인구 씨에게는, 아내 없이 두 딸과만 이루는 가정이란 그다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단지 본능적인 부성애와, 딸들의 양육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딸들 스스로가 부녀간의 애정과 삼부녀만의 가정적인 화합 단란을 거부하는 이상 형식적이고 타성적인 삭막한 가정의 유지 관리는 더욱 무의미한 것이다. 그렇다고 딸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작용시킬 만큼 인구 씨의 인격과 덕망이 고매한 것도 못 된다. 한편 아버지의 권위와 의사에 맹종할 만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딸들은 이미 어리지 않다. 그러니 결국 무리한 견제와 부조화에서 오는 애정적 혹은 감상적 피해를 막고, 각자의 세계를 추구 확립하기 위해서도 결연히 해산해버리는 편이 오히려 현명한 방법으로만 인구 씨에게는 생각되었다.” (『삼부녀』, 149면)

36) 아렌트는 이것을 인간의 기본 활동 중 하나인 ‘행위(action)’라고 개념화했다. “사람들은 행위하고 말하면서 자신을 보여주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고유한 인격

녀는 그러한 공동체의 형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어떤 주제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쏟아놓을 때 거기에는 각자가 살아온 인생과 그 와중에 형성된 가치관이 오롯이 반영되어 있다. 위 인용문의 줄친 부분이 말해주듯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인격과 취미와 인생관을 명확히 보여주고 동시에 타인의 그것에 어떤 훈계나 수정을 가하려 들지 않는다. 오히려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얻는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것 자체가 다른 이에게 자극이 되고 그것으로 자신의 인격도 다시 새롭게 주조되는 건강한 개인들의 모습이 위 인용문에 나타나 있다.

한편 그러한 드러냄은 필연적으로 충돌과 갈등, 긴장을 야기한다. 김경미는 난잡한 이성관계로 파멸에 이른 김창갑의 딸로서 아버지 에 대한 맹렬한 분노를 남성을 유혹하여 굴복시키는 것으로 해소하며 살아온 인물이다. 그래서 강인구의 집에 들어왔을 때에도 강인구를 유혹하려 한다. 김창갑으로부터 딸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강인구는 참을성 있게 곤란한 상황에 대처해나간다.³⁷⁾ 그가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고 시험하려드는 김경미에게 화를 내거나 훈계하지 않는 이유는 김경미의 속사정을 알고 공감했기 때문이다. 안경희도 김경미를 처음 본 날 김경미의 무례한 언동 속에 숨은 상처를 알아차리고 “정말 우리가 데리고 살아야겠어요. 상처받은 사람들끼리.”³⁸⁾라고 말한다. 이 역시 안경희가 김경미에게 공감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두 사람은 김경미의 노골적이고 낮 뜨거운 언동에도

적 정체성을 드러내며 인간세계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낸다.” (한나 아렌트, 앞의 책, 268면)

37) “남자란 수케인 동시에 또한 엄연한 인간이란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고 따라서 난잡한 향이의 쿳대를 꺾어주고 싶었던 것이다.” (『삼부녀』, 208면) 여기서 ‘수케’와 ‘인간’ 중 강조점을 찍는다면 ‘인간’ 쪽일 것이다. 동물적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인간다운 도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또한 인간임을 더욱 강조하는 구절이다. 인간에 대한 작가의 신뢰감을 알 수 있다.

38) 『삼부녀』, 197면.

김경미가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린다. 기성 도덕이나 제도, 권위나 힘에 기대지 않고 김경미라는 한 인간의 내적 갈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의견과 지혜를 동원해 대응하는 방식이다. 그 과정에서 알몸이 되어 하룻밤을 보내기라든가 혼욕과 같은 장면들이 연출되지만 무분별한 성욕의 분출은 일어나지 않는다. 선정적인 장면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대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김경미에 대한 철저한 존중과 일정한 거리감이 더욱 두드러진다. 그렇게 몇 차례의 노골적이고 위험한 시도들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김경미는 눈에 띄게 변화한다. 김경미 역시 강인구와 안경희의 태도에 감복한 것이다. 김경미의 방식을 존중하는 방식이 오히려 김경미를 설득하고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한다.

현대인은 단순한 혈육지정이나 인습적인 제도로만 묶어 놓기에는 너무나 자아의식이 강한 존재들인 것이다. 이들의 유대와 결속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강렬한 공감과 공명이 필요한 것이다.

(중략)

그런 만큼 과도한 책임감, 의무감, 그리고 도덕적인 부담감 같은 것이 강요되지 않았다. 서로 계약 내용만 지키면 되는 것이다. 소녀들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생활에 보람과 즐거움을 찾고 있는 모양이었다. (『삼부녀』, 217면)

이들이 작성한 계약서는 이들이 확인한 “공명과 공감”을 확인시키는 증명서이기도 하고 그 공명과 공감을 안정감 있게 유지시키는 발판이자 보호막이기도 하다. 계약을 준수하면서 그들 사이의 유대감을 더욱 안정적으로 강화시켜나가는 것이다. 강인구는 처음에는 안경희를 “여대생 창녀”라고 불렀으나 말미에 이르러 “가족”이라 칭한다. ‘여대생 창녀’라는 배제와 혐오의 언어는 가족 공동체의 형성에 이르러 유대감과 공감의 언어로 치환된다. 다른 측면에서는 ‘가족’이

라는 단어가 부담감과 의무의 의미를 떠나 비로소 안정감과 유대감의 의미를 얻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친밀한 가족적 유대감을 공유하면서 공존하지만 그러면서도 서로가 각자 살아가는 타인이라는 점이 지속적으로 강조된다는 점³⁹⁾은 이 가족 공동체의 근간에 ‘타인’이라는 인식과 존중이 기본적인 전체로 작동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시켜준다. 그리고 작가는 이것이 ‘현대인에게 적합한 방식’이라고 말한다. 『부부』에서도 ‘현대의 부부 생활’을 거론하지만 그것이 소설 안에서 직접 실현되지는 못했던 것에 비해 『삼부녀』에서 비로소 가족 차원으로 확장되어 직접 실현된다. 가족 공동체를 향한 작가의 구상이 이 소설에 이르러 하나의 명확한 실현대를 갖게 된 셈이다.

아렌트는 ‘약속’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았다. 동등한 타인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자각하고 약속을 통해 신뢰와 안정감을 획득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체계를 지향한다는 것은 분명 인간만의 능력이다.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일로 보이지만 인간 사이의 윤리 역시 바로 여기에서 생겨나고 보호받는다.⁴⁰⁾ 그렇다면 그러한 약속의 능력을 심분 발휘하는 인물들이 이끌어가는 이 소설에서 작가가 품고 있는 인간에 대한 신뢰를 발견하는 것도 무리한 해석은 아닐 것이다.

39) “건 아저씨 말씀이 옳아. 우리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넌 너대로 난 나대로 독자적인 각자의 길을 가는 거야. 또한 아저씨 아저씨대로의 마지막 생애를 어떻게 서든 아저씨 나름대로 마무리하실 테니까. 외로운 건 아저씨뿐이 아냐. 따지고 보면 사람이란 누구나 외로운 거야. 넌 너대로, 난 나대로 말이야. 그 외로움이란 아무도, 세상의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거야. 결국 각자 스스로가 짊어지는 수밖에.” (『삼부녀』, 235면)

40) 아렌트의 ‘약속’ 개념은 정치학을 정치윤리학으로 격상시켰다고 평가된다. (서유경, 『약속의 정치학 : 한나 아렌트의 로마 커넥션과 그 함의』, 『정치사상연구』 17(2), 한국정치사상학회, 2011, 33면, 33면) 또한 약속을 하고 지키는 것은 “상호 관계에서 발생하는 해약의 금지를 명령하는 인격의 존경에 기초”함으로써 (공병혜, 앞의 논문, 57면) 타인들의 공동체에 함의된 윤리성을 확인시켜준다.

5. 나가며 : ‘공존’에 대한 작가적 탐구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 처음으로 결속감을 느끼는 장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매우 소중하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만큼 사회화의 기구로 활용되기도 쉽다. 가족을 사회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장소로 만들면 사회에 대한 지지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의 결속감이 사회 수준으로 확장되어 관습화되고 통합의 규범이 된 결과물이 가족주의이다.⁴¹⁾ 한국은 개인에 대해 충분히 성찰한 여유를 갖기 못한 채 민족, 국가 등 거대 담론이 현대사를 이끌어온 탓에 가족과 사회, 국가가 일체화된 가족주의적 사고방식이 뿌리내리기에 더욱 용이했다. 손창섭이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했던 1950년대와 1960년대는 독재의 영향력 아래에서 가족주의가 깊이 뿌리내렸던 시기이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시작된 산업화와 맞물려 가족주의는 충실한 국가기구로 작동했다.⁴²⁾

집단화 이데올로기가 강력하게 뿌리내린 상황에서 개인의 개성과 욕망은 이기주의로 왜곡되어 배격당한다. 그러나 인간은 개성과 욕망을 포기한 채 의무만을 이행하는 것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 가족 역시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어서는 인간의 안식처가 될 수 없다. 손창섭은 통합기제가 되어버린 가족주의를 부정했다. 대신 개성과 욕망을 추구하는 인간들, 살아 있는 인간들이 만드는 공동체로서의 가족을 구상했다.⁴³⁾ 그의 소설은 기존 가족 체제에 대한 단순한 비판에

41) 이황직, 『한국 사회의 가족주의 : 개념 설정 및 개념사 연구』, 『사회이론』 22, 한국사회이론학회, 2002, 339면.

42) “우리 사회의 경우, 강력한 행정력을 가진 정부의 직접적인 지시와 개입을 통하여 강조되었던 수단의 합리화가 전통적 사회 유형인 가족 중심적인 가치와 틀 안에서 수용되고 확장되었다고 풀이된다.” (박영신, 『한국사회의 변동과 가족주의』, 『역사와 사회변동』, 대영사, 1987, 277면)

43) 아렌트가 주장하는 바, 행위하는 인간들의 공적 영역, 즉 동등한 개인들이 자신의 의견과 관심을 표명하고 서로 나누는 공적 공간을 ‘정치 공동체’로 구분할 수

서 멈추지 않는다. 기존의 가족 체제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이 직접 언급되지만 사실 소설 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그러한 가족 체제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시도들이다. 따라서 분석의 무게중심 역시 그 시도들을 따라가는 데에 두어야 작가의 의도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부정한 것은 가족주의로 변질된 가족이었지 가족 자체가 아니었다. 그렇기에 그는 바람직한 가족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탐구했다. 본 연구는 그 새로운 가족의 형상을 '가족 공동체'라 칭하고 그 1960년대적 특성을 논하였다.

이상으로 보아서, 일개 아마추어 작가요 위조작가에 불과한 나로서는, 건전하고 정상적인 많은 독자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소설다운 작품을 쓰기란 지난한 일일 것이다.⁴⁴⁾

손창섭은 1965년에 쓴 글에서 소설가로서의 자신을 위와 같이 표현했다. 신문 연재소설을 쓰기 전까지 독자에게 받아 본 편지라면 해외에서 유학하는 고학생과 사형수에게 받은 것이 전부라며 자조하듯 술회한다. 그러나 당시 손창섭의 작가로서의 위상은 탄탄했다.⁴⁵⁾ 그렇다면 위의 구절은 그가 주변의 찬사나 주목에도 흐트러짐 없이 붙잡고자 했던 작가적 소망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가 꿈꿨던 소설은 “공감”하는 소설이었다. 이러한 소망은 가족 공동체에도 그대로 스며있다. 연고가 없는 타인들이 공감이

있다. (김선옥, 앞의 논문, 203면) 『삼부녀』에서 반복되는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에 강인구, 안경희, 김경미가 이루는 가족 공동체가 대안이자 유효한 반박으로 제시되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룬다면 이들 가족 공동체의 정치적인 특성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44) 손창섭, 『아마추어 작가의 변』, 304면.

45) 정철훈, 『내가 만난 손창섭』, 도서출판 b, 2014, 79면.
당시 평론가로 활동했던 유종호의 회고에 따르면 손창섭이 철두철미하고 대인관계가 넓지 않았음에도 작품이 좋은 탓에 문인들이 그를 어려워했다고 한다.

라는 끈 하나로도 단단히 결속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제도가 당연하다는 듯 요구하는 의무 없이도, 각자의 개성과 욕망을 심분 존중하면서도,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가족의 형태가 가능하다는 것을 소설로 주장한 것이다.

그들은 사적 친밀함을 누리면서 동시에 공적인 관계를 맺는다.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조화롭게 서로를 지탱하는 것이 인간다운 삶의 모습인 것처럼⁴⁶⁾ 작가는 타인들끼리 이루는 공동체를 통해 사적 친밀함과 공적 존중, 안정감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삶, 즉 공존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인간들의 공존은 작가가 지속적으로 탐구해온 주제이기도 하다. 그것을 실험하는 장소로서 가족은 매우 적합하며 작가의 소설에서 가족의 형상을 추적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부부』의 차성일과 『삼부녀』의 강인구는 모두 가족의 근간을 부부에 두었고 남녀의 결합을 ‘약속’의 형태로 객관화하려 시도한다. 그러나 차성일은 실패하였고 강인구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가족적 단란함과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간다. 둘의 차이는 가족을 타인들의 결합으로 인식하는 것에 있다. 약속은 ‘계약’으로 형상화되어 서로 다른 사람들과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 기능한다.⁴⁷⁾ 계약 연애와 계약 가족은 지금 시대에 와서 보아도 낯선 형태의 관계이다. 통속성과 선정성에 당장 눈길이 쏠리지만 그것만으로 소설의 의의에 한계를 둘 수는 없다. 강인구가 손창섭의 작품 세계에서는 보

46) 한나 아렌트, 앞의 책, 148-149면.

아렌트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 우열이 없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한다. 두 영역은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존재하도록 지탱해준다. 사적 영역에서 사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야 공적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얻고, 공적 영역은 사적 영역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두 영역은 노동, 작업, 행위라는 근본적 인간 활동이 일어나는 “적절한 위치를 가리”킬 뿐이다.

47) “서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킴으로써 상이한 사람들과 공존과 제휴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서유경, 앞의 논문, 33면)



기 드물게 가족의 단란함과 안정감을 직접 누리는 인물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담긴 작가의 의도가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세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 손창섭, 『부부』, 정음사, 1962. (『동아일보』 1962.7.1-1962.12.2.)
- _____, 『삼부녀』, 예옥, 2010. (『주간여성』 1969.12.30.-1970.6.24.)
- _____, 「나는 왜 신문소설을 쓰는가? - 『부부』의 작가 손창섭 씨는 말한다」, 『세대』 1968.3.
- _____, 「아마추어 작가의 변」, 『사상계』 1965.7.
- 『부부가족제로』, 『경향신문』 1962.9.25.

2. 논문

- 강유진, 「손창섭 소설의 변모 양상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58면.
- 공병혜, 「약속 인격의 정체성과 도덕적 의무」, 『칸트 연구』 32, 한국칸트학회, 2013, 39면, 57면.
- 공중구, 「《삼부녀》에 나타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가족주의」, 『현대소설 연구』 50, 한국현대소설학회, 2012, 23-28면.
- 김명임,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가족의 의미 - 불안과 회피에 대하여」, 『반교어문연구』 45, 반교어문학회, 2017, 175-176면.
- 김선욱, 「정치 공동체 형성 원리로서의 사랑에 대한 연구」, 『정치사상연구』 10, 한국정치사상학회, 2004, 203면, 208면
- 김세준, 「자유계약을 통한 가족이데올로기의 재구성 - 손창섭 장편소설 『삼부녀』를 대상으로」, 『인문연구』 75,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200-205면.
- 박영신, 「한국사회의 변동과 가족주의」, 『역사와 사회변동』, 대영사, 1987, 277면
- 박찬효,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남성의 존재론적 변환과 결혼의 회피/가정의 수호 양상」, 『상허학보』 42, 상허학회, 2014, 384면.
- _____, 「손창섭의 1960년대 신문연재소설에 나타난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과 양치 이데올로기의 균열 양상」,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6,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5, 223-229면.

- 방민호, 「‘막장 드라마’의 이면」, 『삼부녀』 작품해설, 예음, 2010, 249면.
- 서유경, 「약속의 정치학 : 한나 아렌트의 로마 커넥션과 그 함의」, 『정치사상 연구』 17(2), 한국정치사상학회, 2011, 33면.
- 이선미, 「1960년 전후 (성)문화풍속과 ‘사랑’의 사회성 - 손창섭의 『부부』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29, 상허학회, 2010, 429-430면, 437면, 444면.
- 이황직, 「한국 사회의 가족주의 : 개념 설정 및 개념사 연구」, 『사회이론』 22, 한국사회이론학회, 2002, 339면.
- 정보람, 「1950년대 신세대작가의 정치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75-178면.
- _____, 「1950년대 손창섭 소설의 가족 공동체 연구」, 『어문논집』 45(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7, 248-255면.

3. 단행본

- 정철훈, 『내가 만난 손창섭』, 도서출판 b, 2014, 79면.
-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 옮김, 한길사, 2017, 96면, 98면, 100-102면, 113면, 148-149면, 268면, 291면, 292면, 339면, 340-341면.

<Abstract>

Family as a community in Son Chang-seop's novels of the 1960s

Jeong, Bo-Ram

This study premises that Son Chang-seop(Son Ch'angsöp) has consistently pursued the theme of 'family as a community' in his works since he first became a writer in the 1950s and focuses on the particular attempts and successes he achieves as a writer in the works he published in the 1960s. Son Chang-seop continues to pay attention to family relationships in his works in the 1960s. Unlike his novels in the 1950s in which families are triggered by someone's death to transform into a community, Son Chang-seop's works in the 1960s depict family communities that are created through contracts that lead to desirable outcomes after twists and turns. The narratives of *Married Couple* and *Three Fathers and Daughters* present how this process unfolds and exemplify how the writer's ideal of family as community gradually finds its roots in reality and become molded into specific forms.

Son Chang-seop's full-length novels *Married Couple (Pubu)* and *Three Fathers and Daughters (Sambunyö)* both use 'promise' as an objective mechanism for forming and maintaining a family. In *Married Couple*, this promise takes the form of a 'couple's agreement,' and in *Three Fathers and Daughters*, the characters



enter into a 'contract.' However, the promise ends in failure in *Married Couple*, while in *Three Fathers and Daughters*, the characters succeed in forming a loving, happy family. The reason for this difference in outcomes can be found in the way the characters build relationships with others: in the former, the characters try to form a one-way relationship with the other, but in the latter, the characters create mutual relations based on discussion and consent. In *Three Fathers and Daughters*, mutual respect of the other who is distinct from oneself is the foundation of the family that is formed, enabling the construction of a healthy and desirable family community. In this study, the concepts discussed by Hannah Arendt are used to analyze how this was possible in *Three Fathers and Daughters* in detail.

Key words: Son Chang-seop, 1960s, family as a community, family, *Married Couple*, *Three Fathers and Daughters*, promise, contract

투 고 일 : 2018년 8월 15일 심 사 일 : 2018년 8월 15일-9월 12일
게재확정일 : 2018년 9월 14일 수정마감일 : 2018년 9월 24일